

## 蔚山工科學大學의 座標와 展望



李 寬  
(蔚山工大 學長)

### I. 設立과 發展의 自視

韓國의 지난 20년은 社會經濟 및 科學技術의 發展에 있어 과거 어느 시기, 어느 기간에도 비할수 없을 만큼 큰 躰을 그은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70年代는 1·2次 經濟開發計劃의 수행을 바탕으로 先進工業園의 뒤를 쫓아 離陸할 運動量을 축적하는 時期였으며, 각 部分 各 급의 人力, 특히 科學技術分野의 高級專門要員의 數는 激增하였다.

이러한 時代的 상황에서 本大學은 韓國工業의 中樞인 蔚山工業園地를 中心으로 浦項, 釜山, 昌原工業園地를 잇는 大工業帶域을 背景으로 1970年 3月 16日 開校를 보게 되었다.

本大學의 設立은 韓國의 科學技術 發展을 支援하려는 英國政府의 뜻과,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韓國政府와, 또 이에 뜻을 같이 한 國內 企業人의 努力이 한데 뭉쳐진 結實이며, “蔚山工科學大學設立을 위한 韓國·英國政府間 協定”을 母胎로 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英國政府로부터 最新의 實驗實習 機材와 英國人 教授 및 專門家를 支援받았으며, 本大學 教授의 계속적인 派英 訓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本大學 維持財團의 과감한 投資는 本大學의 發展에 內實

을 기하여 주었다.

開校當時 工學系 5개 學科 募集定員 200명으로 시작된 本 大學은 國內 技術人力 수요에 부응하는 自然的인 發展에 따라, 開校 10년째인 1979년부터는 工學系 分野를 거의 망라하는 9개 學科, 11개 專攻에 960명의 募集定員과 첫 非工學系 分野로 經營學科 40명을 모집하게 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蔚山市는 人口 50萬의 大都市로 성장하여 인근의 圈域을 포함하여 하나의 社會經濟 及 文化圈을 形成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非工學系 分野의 高等教育 機會에 대한 要求는 폭발적이었으며 따라서 地域內 唯一의 大學인 本校에서 이를 受容해야 한다는 것은 內·外的으로 必然的인 것이었다. 1980년부터 치밀한 準備에 의해 人文·社會系 學科의 開設이 漸進的으로 이루어져, 1984년에는 工學系 9개 學科, 理學系 3개 學科, 人文社會系 7개 學科, 家政系 2개 學科 及 藝體能系 2개 學科로 總 23개 學科, 26개 專攻으로 入學定員 2,145명의 규모로 發展하여, 學問의 領域 及 各種 機能의 원활한 調和 속에 綜合的인 文化的 產婆役을 담당하고 있다.

### II. 大學理念과 教育의 基本方針

大學은 人類의 위대한 知的 遺産을 繼承하고

發展시키며 社會文化的 變化的 進路를 豫示하여 國家社會의 發展을 先導해야 할 使命을 띠고 있다. 이를 위해 大學은 各 分野에 걸친 專門學術理論의 研究, 啓發, 傳授는 물론, 이 理論의 合理的 活用을 可能케 하는 폭 넓은 人格陶冶의 殿堂이 되어야 한다.

眞理는 그 自體가 영원한 價値이며 知識의 理想이다. 따라서 大學은 眞理探究의 使命을 위해 필요한 與件을 스스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한편으로 대학은 學術理論의 적합한 應用을 통해 國家社會에 봉사할 指導者를 양성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이를 위하여 被教育者로 하여금 知·情·意의 調和된 人格 위에 學術理論의 知識과 그 活用能力과 함께 奉仕精神, 創造의 意고 치밀한 思考能力, 開拓者의 信念, 能動的인 活動力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理念의 具現을 위해 본 대학에서는 開校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教育의 基本方針을 설정하고 있다.

### 1. 研究하는 大學

教授들의 學術연구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이를 위하여 個個 教授의 學術연구 雰囲気을 自由롭게 유지하며, 研究施設을 계속 擴充하고 있다. 또한 國內外 學術誌를 최대한으로 비치하고 각종 學術情報 서어비스를 活性化하고 있다. 대학 維持財團(現代)에서 出捐한 現代研究費와 大學自體에서 책정된 實驗研究費, 그리고 外部로부터의 研究費 支給으로 인해 研究을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教授가 財政的인 支援을 받도록 하고 있다.

### 2. 공부하는 大學

學生으로서의 첫째 본분은 공부에 있으며 學問知識의 習得 없이는 指導者로서 國家社會에 奉仕할 수 없음에 비추어, 철저한 教育진행과 이에 대한 學生들의 호응과 함께 勉學風土를 이루고 있다. 圖書館에는 年中無休의 열람실과 20,000여 권의 學生用 學術書籍을 開架式으로 운영하는 課題圖書館, 장서실, 참고도서실, 정기간행물실 등이 있고, 그와 함께 각종 專攻圖書와 660여 종의 學術誌가 비치되어 學生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이 되고 있다.

또한 外的인 원인에 의한 學事制度의 變遷과는 관계없이 開校時부터 一貫性 있게 유지해 온 엄격한 學事管理體制는 學生들의 勉學 분위기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게다가 넓고 公正한 獎學方針은 勉學 분위기를 造成에 큰 役割을 담당하고 있다.

### 3. 未來指向의 教育

근간의 世界 學問의 發達, 특히 科學技術 分野의 進展은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先進産業國家에 있어서 學術理論으로부터 그것의 産業應用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단축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趨勢에 덧붙여 韓國은 이제 先進國型 産業國家로 발돋움하려는 過渡期에 처해 있기 때문에 技術發展의 충격도 그만큼 더 크게 느끼고 있다.

教育이란 무릇 發展의 未來를 향해야 한다는 것은 再言할 필요도 없겠으나 이러한 뜻을 실제 教育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的인 일이다. 특히 韓國과 같은 過渡期에 처해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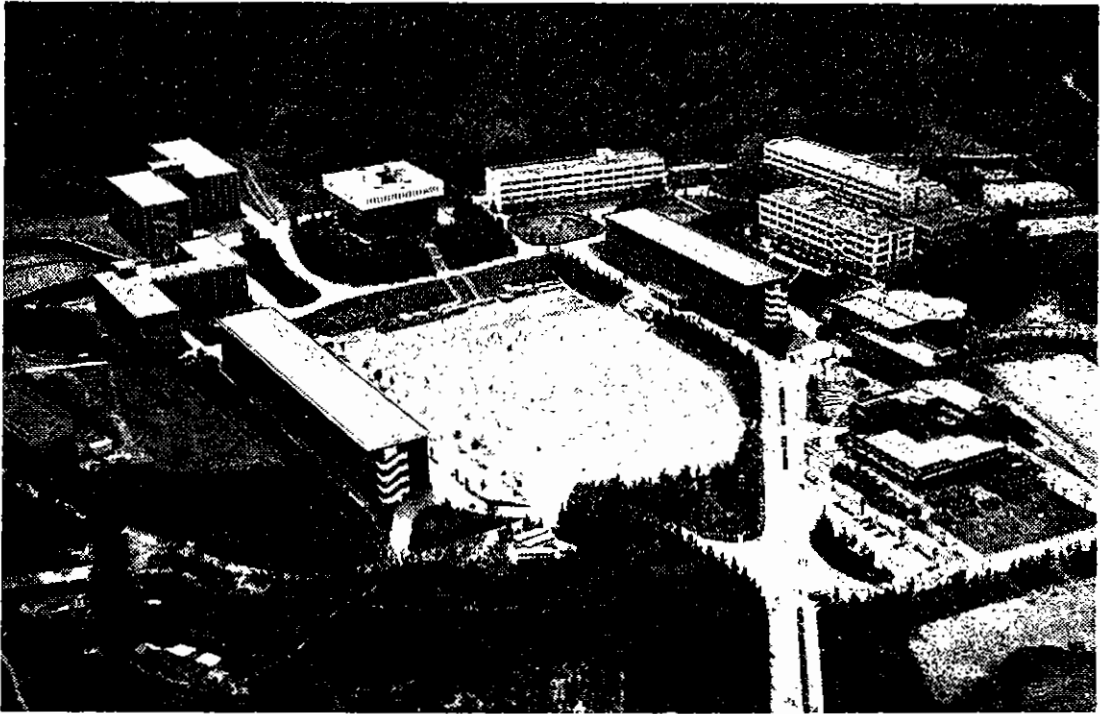
本大學에서는 1970년 開校當時부터 韓國에서 처음으로 全體 理工系 學生에게 電算教育을 必須로 實施해 오고 있으며, 專門的인 專攻科目에 치우치기보다는 基礎 및 素養科目에 教育의 力點을 두어 오고 있다. 이는 튼튼한 基礎 위에 專攻의 應用力을 길러 急進하는 高度技術産業時代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合理的인 教科課程을 維持하기 위하여 매년 教科課程의 檢討를 실시하고 있음도 자칫 일어나기 쉬운 教科課程의 固化를 막기 위한 것이다.

### 4. 살아 있는 教育 實施

學問追究에 있어 講義에만 依存하지 않고 實際的인 體驗을 같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實驗을 통해 理論을 體得한다는 뜻뿐 아니라 實驗하는 精神과 姿勢를 기르는 데 더 큰 重點을 두고 있다.

또한 學內教育을 벗어나 3학년 중에 1~3개월의 現場實習을 事前에 세운 치밀한 計劃 아래



실시하여 좋은 成果를 얻고 있다. 本校의 現場 實習은 종전의 任意의 現場實習과는 달리, 産業 體와의 實習內容에 대한 事前協議를 통하여 실시하고 學點도 부여함으로써 教育의 연장이라기보다는 教育의 一部가 되고 있다. 이는 英國에서 특히 科學技術 分野 大學에서 成功的으로 運營하고 있는 Sandwich Course의 도입으로 學內教育과 現場과의 연계성의 體得, 전공분야간의 相互연관, 自己專攻에 대한 새로운 認識 등으로 學究熱의 提高 등의 效果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충분한 實驗 및 現場實習과 아울러 産業體 人士들을 講師로 招聘함으로써 生動하는 教育을 위하여 努力하고 있다.

### Ⅲ. 本大學의 特性

#### 1. 韓·英 協定

本大學의 設立과 發展과정에서 韓·英協定이 主役을 담당하였음은 前述한 바 있거니와 開校 첫해인 1970년부터 導入되기 시작한 英國의 最新 實驗機材는 약 100萬弗 상당에 이르러 당시

學部 實驗實習施設을 충분히 確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延 32명의 英國人 교수 및 專門家의 來校 支援, 그리고 本大學 교수 의 長·短期 派英訓練 인원이 延 38명에 이르렀는데, 그 중 8명이 博士學位를 취득하였고 현재에도 9명이 研究進行中에 있다. 이와 같이 韓·英 協定은 本大學의 發展에 큰 寄與를 하였다.

本大學은 英國의 Newcastle-Upon-Tyne 大學, Loughborough 大學 및 Leeds Polytechnic 등과 姉妹關係를 가지고 활발한 交流를 하고 있다. 또한 英國의 技術圖書의 展示, 産業技術세미나, 版畫展, 音樂會 등을 개최하여 文化 및 技術交流에도 力을 담당하고 있다.

#### 2. 產學協同

國內 最大의 公營 單지를 背景으로 한 本大學은 產學協同을 위한 最適의 條件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產學間의 有機的인 協助가 國家産業發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는 것은 附言할 필요도 없다. 本大學은 地域內 唯一한 大學으로서 大學의 施設, 教育, 研究支援을 통하여 産業에 寄與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즉 中央圖書館을 開放하여 지역의 科學技術情報센터의 役을 맡고 각종 試驗 및 研究의 遂行, 電算教育을 비롯한 短期教育課程 實施 및 각종 세미나의 개최, 그리고 本大學院에 產業體 在職者가 現場의 問題를 다루어 研究할 수 있는 課程을 開設하는 등 울산지역 繼續工學教育의 礎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地域內 企業體들도 本大學에 대하여 많은 協助를 提供하고 있다. 產業施設을 本大學 학생들의 現場實習을 위하여 開放하고, 產業教授로서 學生實習을 計劃, 指導, 評價하는 데에 參與하고 있으며, 產學連繫研究를 活性化하고 있다. 또한 울산지역의 企業體들의 모임에서 本大學 학생들에게 매년 112명분의 장학금을 提供하고 있다. 이는 한 지역의 企業體가 한 大學을 集中 支援하는 것으로서 國內에서는 다른 例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밖에 產學人士間의 자연스런 親睦을 통해 더욱 圓滑한 產學協同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機會를 만들고 있는데, 年例行事인 學長招請 產學親善 테니스大會는 그 좋은 例이다.

이러한 本大學의 產學協同努力은 높이 評價받아 1977년 產學協同財團이 制定한 產學協同賞을 受賞하기도 하였다.

### 3. 젊음과 意慾

本大學 教授의 평균 연령은 비교적 젊은 편이다. 물론 젊음에는 未熟이라는 흠도 없지는 않겠으나 意慾에 찬 젊음의 모임에서 教授간의 自由스럽고 生氣있는 분위기를 造成하고 또 이러한 분위기는 意慾과 함께 교육에 대한 熱意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젊음이 주는 가장 큰 長點이라면 무엇보다도 開拓하고 先導하려는 분위기 조성으로서 그간 學事運營에 있어 새로운 制度의 과감한 導入 및 實施가 가능하였던 것도 이러한 교수 분위기의 힘 때문이었던 것이다.

### 4. 教授開發

教授 研究與件의 確保와 함께 教授의 海外派遣 등을 통하여 교수들의 資質向上을 도모하고 있다. 현 153명의 在職교수 중에 26명의 교수가

海外에 研究派遣되어 있다.

## IV. 本大學의 未來像

1970년 開校 이래 本大學은 不斷한 努力과 誠實으로써 內實을 다져 왔다. 이제 韓國이 世界 先進隊列에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本大學은 世界 속의 대학으로 飛躍하기 위해 모든 힘과 熱意를 모아 갈 것이다.

이러한 意慾은 1977년부터 本大學의 維持를 담당하고 있는 財團(理事長 鄭夢準)의 積極적인 支援으로 말미암아 빠른 時日 안에 그 開花를 볼 것으로 教授·學生 모두가 確信하고 있다.

### 1. 學問研究의 殿堂

尖端科學技術의 研究는 물론 人文社會의 研究도 더욱 活性化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研究費의 擴充, 大學院의 本軌道 진입, 研究圖書의 確保 및 研究機材의 계속적인 補完이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機材의 경우 短期的으로 본다면, IBRD 및 OECF 2차 교육차관에 의해 약 400萬弗의 機材가 導入되었거나 導入中에 있으며, 이와 같은 計劃은 앞으로도 계속 推進될 것이다.

교수의 海外交流를 계속 장려하며, 각종 研究所의 機能을 提高하여 學問研究 그룹을 형성하고, 產學協同研究로 國內產業의 發展에 많은 寄與를 하게 될 것이다.

### 2. 教育의 터진

「공부하는 大學」이라는 開校 이래의 基本方針을 계속 固守하고 계속적인 實驗機材의 보완 및 圖書館의 擴充 등으로 학생의 勉學與件을 改善하고 獎學 및 厚生에도 力點을 두어 학생들이 勉學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

教育의 方向도 학생들로 하여금 被動的인 知識의 受容態度에서 벗어나 能動的인 思考能力을 기를 수 있는 教育으로 強化될 것이다.

綜合的인 學問의 배움터로서 학생·교수간 및 學生 相互間의 知識과 教養을 나누어 장래 國家民族의 指導者로서의 人格을 함양해 나가는 배움의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 3. 國家社會에의 奉仕

産業化時代인 現代社會에 있어서 大學의 社會에 대한 奉仕의 機能은 強調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필요할 것이다.

本大學은 이를 위해 두 가지 側面에서 努力을 경주할 것이다. 그 첫째는 產學協同의 深化이다. 本大學과 産業體間에 長·短期 教育, 研究 및 技術情報의 交流 등을 점차 확대하여 궁극에는 產學을 하나의 有機的인 덩어리인 產·學體로 發

展시켜 나갈 것이다.

또 하나는 東部嶺南地域의 유일한 大學으로서 이 地域의 傳統文化의 繼承發展과 보장이 필요한 學問領域을 開設하여 이 지역을 하나의 文化圈으로 形成하고 國家的으로 均衡 있는 社會文化 發展을 이룩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非理工系의 學科를 충분한 準備 과정을 통해 점차 확장하여 產學 및 社會의 綜合的인 文化의 中樞機關으로 構成해 갈 것이다. \*

## 投 稿 案 內

會誌「大學教育」第11號에 掲載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한 論說, 各種 學術情報, 現場提言 및 體驗談 등으로 다음에 맞는 글

① 論 壇

② 學科別 教育課題

③ 나의 體驗

④ 現場提言

⑤ 教育資料

2. 枚 數— 200字 原稿紙 25枚, 35枚 또는 44枚

3. 期 限—1984年 6月 25日

4. 稿 料—一枚當 2,500원 (採擇된 原稿에 限함)

5. 提出處—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 (783-3891, 3067)

6. 附 記

① 國漢文을 混用하되 漢字를 制限하고 必要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② 論型原稿에는 반드시 200字以內的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③ 提出된 原稿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掲載합니다.